

GS칼텍스, 경영환경 불확실 극복 매진

허동수 회장, 가능성 예측 유연대응 시나리오 강조 ... 위험요인 최소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1월2일 “우리가 지금 체감하듯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예측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Scenario Planning)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동수 회장은 1월2일 시무식에 맞춰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아무리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위험요인을 최소화해 우리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성장 기반 구축, 조직 경쟁력 강화, 수익성 극대화를 3대 경영방침으로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 창출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공존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전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를 각별히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종합에너지 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면서 임직원들에게 도전적인 자세와 최고의 전문성 확보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02>